

헌정사 첫 야당 단독 개원... 22대 국회 '반쪽 출발'

국힘, 야당 단독 소집에 불참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장 선출 양보 없는 대치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5일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회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의장단 선출이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 주도하에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1967년 7월, 2020년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1994년 이후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4년 전인 21대 전반기 국회 때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77석의 '거대여당' 민주당이 그해 6월5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퇴장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며 21대 국회를 사실상 단독 개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 구성 협상 난항 속에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터리를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사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10차례 이상 여야 만남을 통해 6월5일 국회법을 준수해 의장을 선출하자고 계속 얘기해왔다"며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22대 국회 첫 본회의 초반은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고, 우 의장이 당선된 뒤 의사를 넘겨받았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도 이르르면 다음주 중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며 이견만 재확인했다.

우원식 신임 의장은 이날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기간 밤새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국힘에 원구성 협상 요구... "7일까지 안 되면 법대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된 국회법 48조 제1항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자리가 관례상 여당 및 원내 제2당 몫이라고 맞서면서 원 구성 협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단독 표결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열리지 않고, 7일 회동 성사 여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11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한 다음 시간을 두고 원 구성에 합의하자고 여당을 설득하되, 이마저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위해 희생한 영웅들 최고 예우로 보답"

尹, 제69회 현충일 추념사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순직 소방관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영웅'으로 호칭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추념사를 통해 약 7분간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2천자 정도의 길지 않은 분량이었다.

추념사에는 '영웅(10회)', '자유(7회)', '희생(4회)' 등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지난해 추념사에서는 한 차례에 그쳤던 '북한

(4회)'에 대한 언급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과 굶주림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거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대비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비열한 도발"이라고 평가하며 "평화는 굶주림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 데 이어 향후에도 힘의 우

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나무' 배지를 달고 추념식장에 입장했다. 검은 치마 정장 차림의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뒤를 따랐다.

국가유공자 후손과 경찰·소방관 등 '제복 영웅'들도 추념식에 함께했다. 6·25 참전 용사였던 조부의 뒤를 이어 3대째 군 복무를 하는 성진제 해군 소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으며, 백마고지 전투 참전 용사의 후손인 박희준 육군 중사는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北도발 단호대응"... 민주 "평화가 튼튼한 안보"

여야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민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온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호국영령의 애국애민 정신과 의지를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특히 전쟁이나 외부와의 충돌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안보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공공주도 주민참여 개발, 이익공유 모델 확산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사업 확산

계획 용량 **30GW**

- 신안 11GW (8.2GW)
- 영광 6.6GW
- 여수 5.5GW
- 진도 3.2GW
- 고흥 1.2GW
- 완도 1.2GW
- 해남 0.9GW

신안 진적화단지 지정, 공공주도 단지개발로 세계적 발전단지 조성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발사업 이익공유 및 주민수용성 확보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

목포신항, 해남 화원산단 연계 부품업체, 연관기업 집적화 국내 최대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지방소멸 극복

산·학·관 협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라남도 JeollaNamdo